

'Bad is bad'로의 변곡점 인식



[Market Analyst] 최유준 수석연구원 ☎ (02) 3772-1964 ✉ junechoi1@shinhan.com

미국 고용 시장 냉각 가능성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인식 강화

2월 구인건수 감소에 이어 미국 3월 ADP 민간 고용이 14.5만명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하회. 비교적 견조했던 ISM 서비스업지수도 하락하며 경기 하강에 대한 인식 강화. 주식시장은 전일과 대조적으로 낙폭을 확대해 마감. 원/달러 환율도 9원 가량 반등. KOSPI는 박스권 상단의 기술적 저항을 확인하며 대형주가 약세를 주도하며 하락. 외국인인 KOSPI200 선물을 2.4만계약 넘게 순매도하며 수급 양상이 급변동. 현물 프로그램 순매도는 2,300억원 수준으로 영향은 제한적. KOSDAQ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 일부 2차전지 관련주 반등하며 1% 내로 낙폭 축소 마감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등 방어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등 방어주의 선방. 대부분 업종은 약세로 반도체를 비롯한 IT하드웨어와 인터넷, 금융주 등이 하락을 주도. 1) **제약/바이오**: 매크로 변수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과 수급 공백으로 인한 순환매 유입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 2) **반도체**: 경기 하강 인식에 따른 미국 반도체 업종 약세 동조화와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경계심 작용. 3) **인터넷**: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의 약세 가운데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도, 주요 종목 120일선 근접. 4) **테마**: 희토류(중국의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 연내 시행), 시멘트(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급업체 우위 환경)

'Bad is bad'로의 변곡점 인식, 개인 수급 방어력이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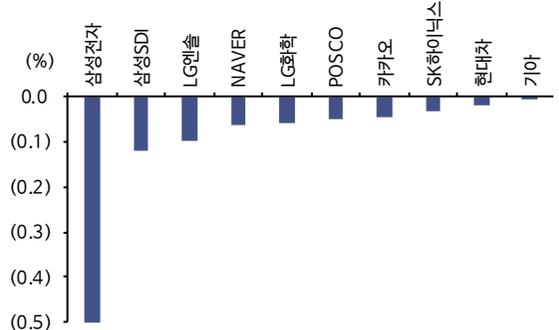
매크로 지표 부진이 건축 종료 기대의 근거가 되며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지표 부진이 주가에 하방 재료로 작용. 7일 밤에 발표될 미국 3월 비농업고용은 23.8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표 발표 후 '악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 금일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 대비 지수는 개인 수급 영향에 비교적 견조. 경기 하강의 영향력이 건축 종료보다 클 경우 개인 수급 방어력이 관건이 될 것

연초 이후 외국인 KOSPI200 선물 누적 순매수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당일 KOSPI 하락 영향 상위 종목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유준).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